



미 증시, 연준위원들의 매파 발언에도 빅테크 중심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8 일(월) 미국 증시는 지난주 7 주 연속 상승 이후 연준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 주말간 대두된 공급망 차질 우려 및 유가 상승에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유지되며 강세 (다우 0%, S&P500 +0.45%, 나스닥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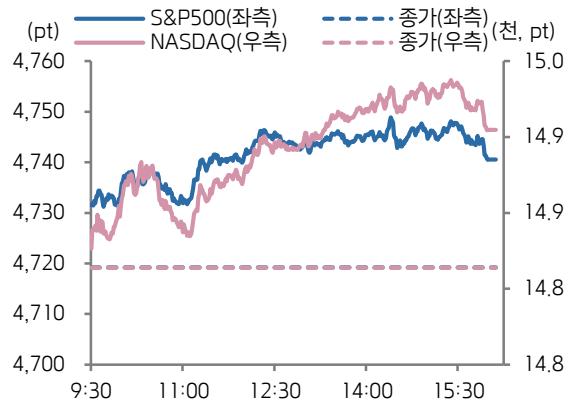
비둘기파 위원인 오스틴 글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난주 시장이 연준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언급. "우리는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펼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내리려고 계획 중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일축.

반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지속한다면 연준이 내년에 금리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한다면 연준 기준금리는 내년에 세 번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라며 올해 인플레이션이 큰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내년 금리인하 기대는 적절하다고 평가.

홍해 선박에 대한 예멘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 운송이 중단되며 수에즈 운하의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되며 유가 상승. 후티 반군은 지난달 예멘 앞바다에서 19 일 영국 회사가 소유하고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갤럭시리더'를 나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20 척 이상의 배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짐. 이 해협은 중동과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주요 해상 수송로로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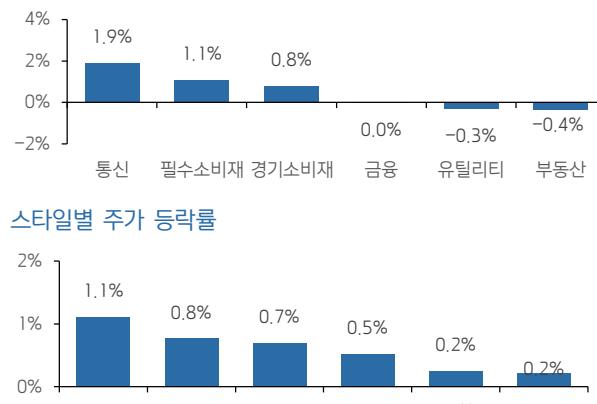
업종별로 통신(+1.9%), 필수소비재(+1.1%), 경기소비재(+0.8%) 강세, 부동산(-0.4%), 유틸리티(-0.3%), 금융(0%) 약세. 어도비는 미국과 EU 및 영국 CMA 등의 규제 기관의 합병 반대로 소프트웨어 업계 사상 최대규모의 M&A 였던 200 억달러(26 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피그마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하며 강세. US 스틸은 일본 최대 철강회사인 일본제철이 149 억달러(19조 4,000 억원)에 인수한다는 보도에 26% 급등. 애플은 특허분쟁 문제로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울트라 2의 판매가 12 월 21 일부터 온라인에서 중단되고, 24 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히며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6.86	+0.13%	USD/KRW	1,297.29	+0.07%
코스피 200	343.50	-0.14%	달러 지수	102.51	-0.04%
코스닥	850.96	+1.51%	EUR/USD	1.09	-0.04%
코스닥 150	1,372.39	+1.89%	USD/CNH	7.14	+0%
S&P500	4,740.56	+0.45%	USD/JPY	142.80	+0.01%
NASDAQ	14,904.81	+0.61%	채권시장		
다우	37,306.02	+0%	국고채 3년	3.279	+0.4bp
VIX	12.56	+2.28%	국고채 10년	3.338	-1bp
러셀 2000	1,982.42	-0.14%	미국 국채 2년	4.446	+0.3bp
필라. 반도체	4,103.79	-0.32%	미국 국채 10년	3.931	+2bp
다우 운송	15,963.04	-0.33%	미국 국채 30년	4.045	+3.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21.13	-0.62%	WTI	72.47	+1.46%
MSCI 전세계 지수	716.45	+0.01%	브렌트유	78.02	+1.92%
MSCI DM 지수	3,126.14	-0.09%	금	2040.5	+0.24%
MSCI EM 지수	1,000.89	+0.84%	은	23.83	-0.16%
MSCI 한국 ETF	64.19	+0.39%	구리	384.8	-0.9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0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1.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비둘기파적이었던 12 월 FOMC,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
2. 금일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 여부
3. 온디바이스 AI 수요, 디램가격 반등으로 인한 반도체업종의 주도주 등극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준위원들의 잇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차단에도 내년 3 월 금리인하에 대한 베팅은 증가. Fed Watch 상 내년 3 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지난주 42%대에서 63%대까지 상승.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시장이 연준의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연준위원들은 연준과 시장 기대의 간극을 축소시킬 것으로 판단. 금주 20 일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비둘기파 인사로 매파적 발언이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주 미 증시에서 빅테크 주가가 부진할 동안 급등했던 금융, 부동산, 산업재, 신재생 등은 조정 받는 등 변화가 감지. 전일 다우지수 조정, 아마존 52 주 신고가 경신한 점 봤을 때, 수요일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다시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쓸릴 가능성.

18 일(월) 국내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 이어지는 가운데,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보도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며 코스피 대비 코스닥 강세 (KOSPI +0.13%, KOSDAQ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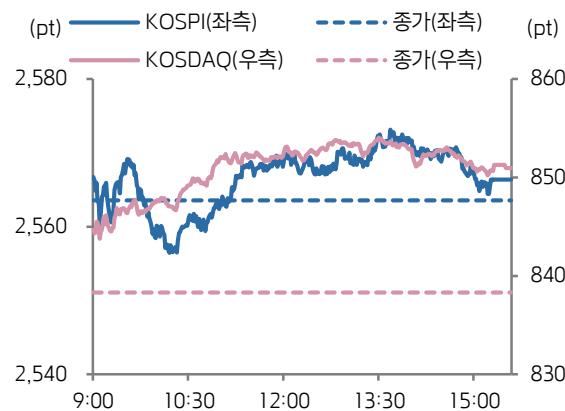
금일에는 연준위원들의 발언 영향은 제한되고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한 미증시에 힙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기존 주도주였던 이차전지, 반도체에 더해 바이오 강세가 두드러졌고 그 외 지정학적 리스크로 운임비 상승 기대감 형성된 해운 업종, 연기금과 패시브 수급을 노리는 대기업 계열사 신규상장주(에코프로머티, LS 머트리얼즈, 두산로보틱스) 강세.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해서는 20 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발표 예정. 대주주 요건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보유 비중 기준 10 억원에서 30~50 억원 확대 실현될 시 코스닥 및 신규 상장주로 쓸림 나타날 수 있음.

한편, 주말 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에 반발하여 홍해를 지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부각. 이에 최근 한달 간 55 척의 선박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했으며 국내 HMM 역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우회를 결정. 수에즈 운하가 아닌 희망봉을 돌게 되면 거리는 6,500 km, 항해 일수는 7~8 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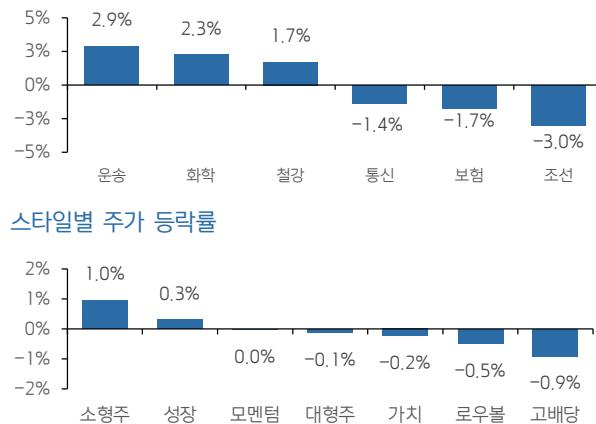
이는 BDI, SCFI 운임비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해운 업종에 호재로 작용. 다만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공급단 인플레이션 자극할 가능성 존재. 21 년 3 월 에버그린사의 에버기븐호 선박 좌초로 촉발된 물류대란의 학습 효과로 글로벌 선사들은 당시보다 빠르게 우회를 결정. 당시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간 막힌 이후 컨테이너 운임은 약 30% 상승. BDI 지수는 지난 12 일 반등 이후 중국 지표 부진으로 4 거래일 연속 하락, SCFI 지수는 지난주 대비 60pt 상승. 급격한 변화는 아직 없으나 향후 1~3 개월간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해당 뉴스풀로우 주시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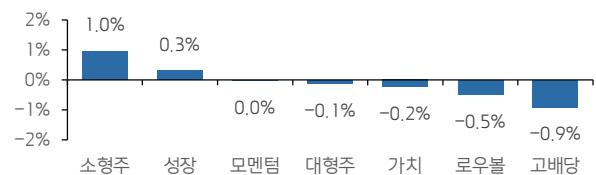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